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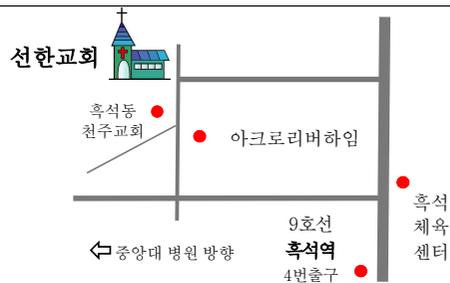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내선교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인혁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전임전도사 김진만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교육전도사 윤 영		주안에교회 (이정필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관 리 장 로	손석규
	박 회 태	500/50 교회	(1호) 필리핀Good Church
장 로	조 계 승 (집사장)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유 신 용, 조 윤 익		
	박 영 근, 윤 호 중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효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سی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맛보아 알지어다 (시34:8)
Taste And See

실 천 사 항 3가지 습관 기록 교사훈련 선교사의 삶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눅 16:25)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23장 (통일찬송가 23장)
교 독 문	교독문 6 (시편 10편)
찬 양 과 경 배	284장 (통일찬송가206장)
대 표 기 도	유 신 응 장로
말 씬 봉 독	누가복음 16:19~31절
설 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교회여 일어나라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그것보다 나으니라 (잠15:16-33)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1. 주일예배: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11시 예배 영상 제공
2. 주중예배: 수요일예배는 말씀자료 제공/ 금요기도회는 영상 제공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2.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2차):
6개월동안 일독하시면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금주범위: 살전1장~히13장]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3. 코 로 나 1 9
기 도 제 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 시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개인 경건 훈련에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찬송 :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통 495)

본문 : 누가복음 12장 29~31절

말씀 : 염려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을 말합니다. 요즘같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 많은 사람이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 염려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염려 때문에 재물을 모읍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소출이 많았던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그 소출을 어떻게 쌓아둘지 걱정합니다. 곳간을 잘 짓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비합니다. 그러면 염려가 종결될까요. 아닙니다.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기근과 재난을 대비해야 하진 않을까' 하면서 끝이 없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집과 재산을 소유한 많은 그리스도인이 소개돼 있습니다. 누가는 그들을 결코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염려를 재물로 해결하려는 생각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염려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을 먹을 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나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방인들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인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토보다 통치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다스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 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실제로 시공간을 초월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염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가 공급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의 나라를 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눅16:19-31)
서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의미

- (1)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 한 부자와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살아가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음(19-21절)
 - (2) 두 사람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당하게 됨(22-23절)
 - (3) 고통중에 있던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통해 물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함(23-26절)
- [이유] ①'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25절) ②'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수도 없게 하였느니라'(26절)
- (4) 부자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내 형제들이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지만 이것도 거절당함(27-31절) [이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31절)
 - (5) 의미: ①이 땅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②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온다. ③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서로 건너는 길이 없다. ④영원한 삶은 이 세상에서 결정된다. ⑤복음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사람이 살아와도 믿지 않는다.

본론

2. 교훈

- (1)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의 의미는?
- (2) 나는 지금 천국 소망을 갖고 있는가?
- (3)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론	이 세상의 삶보다 미래의 영원한 삶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배기도	유신용 장로	윤호중 장로

매일 Q.T.

천국, 내가 소유할 가장 귀한 보화

날짜 : 2월 15일

찬양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본문	마태복음 13:44-58
말씀요약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아 이를 발견한 사람은 소유를 다 팔아 얻으려 합니다. 또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아 나쁜 것들은 내버립니다. 이처럼 세상 끝에 악인이 갈라져 풀무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배척한 고향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십니다.
목상질문 1	※ 천국의 가치 (13:44-52)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천국의 소중함을 알지만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상질문 2	※ 배척당하신 예수님 (13:53-58)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야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른 믿음 생활을 위해 내가 버릴 선입견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13:52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다각도로 가르쳐 주신 후,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 바르게 가르칠 사명을 맡기십니다. 공간에 먹을 것을 넉넉히 저장해 두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어 주는 집주인처럼, 제자들도 천국에 대해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풍성히 가르칠 수 있는 서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것과 옛것'을 모두 잘 알아 연결하고 해석해 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옛것'은 구약 성경을, '새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대망하던 메시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한 이들의 어리석음과 교만이 세계는 없는지요. 감춰진 보화와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구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이 땅의 소유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은혜로 저를 이끄소서.

개인성경공부

“오병이어와 천국 잔치”

찬양과 기도	주 예수 해변서 (새 198)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꽃동네 마을’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죽어 가는 분들을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마을은 1978년 9월, 마을 성당의 오웅진 신부와 최귀동 결인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충북 음성 출생인 최귀동 결인은 일본군의 징용과 강제 노동으로 지병을 얻어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는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와 함께 사는 결인들을 위해 30년간 동냥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어느 날 오웅진 신부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성당 앞을 지나가는 최귀동을 보았습니다. 오 신부는 최귀동의 뒤를 따라갔고 최귀동은 성당 뒷산에 있는 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뼈가 앙상한 여인과 영양실조로 병든 아기와 알코올중독에 빠진 사내가 있었습니다. 최귀동은 이들을 위해 자신이 동냥한 밥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옆 움막으로 들어가 소경과 절름발이, 중풍병환자 등 수많은 결인에게 먹을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 신부는 최귀동의 섬김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평생 살겠다고 했던 자신의 결단이 떠올랐습니다. 오 신부는 다음 날부터 결인들이 살 집을 짓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오웅진 신부와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사랑의 집을 짓는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헌신과 결단이 천국 공동체인 꽃동네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이웃과 세상 사람들의 영과 육을 살리기 위해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 나누기	마태복음 14:13~21
목상포인트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으로 무리와 제자들에게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무리가 풍족하게 먹는 데 필요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만 오병이어를 찾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배불리 먹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은 오병이어 기적은 순종과 감사의 열매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 준 소중한 교훈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더라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에 순종해 드릴 때 하나님은 최고의 결과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목상	무리를 마을로 보내 음식을 사 먹게 하지는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셨나요?(15~16절)
적용하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에 우리 공동체와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할지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육신의 양식을 풍족히 채워 주실 뿐 아니라 하늘로부터 참된 양식을 공급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Q.T.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날짜 : 2월 19일
찬양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본문	마태복음 15:1-20			
말씀요약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범한다 하니,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외식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되어 입으로 나오는 온갖 죄악입니다.			
목상질문 1	※ 전통을 따르는 이들을 책망하심 (15:1-9)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익숙한 신앙생활로 형식화되어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 듣고 깨달으라 (15:10-20)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마음에서 나와 결국 말과 행실로 드러나는 악한 것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15:2 '장로들의 전통'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더욱 철저히 지키기 위해 만든 규정들을 의미하며, 흔히 '구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는 마음으로 '성문 율법'과 더불어 '구전 율법'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의 전통'은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점차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뒷전으로 밀린 율법 준수는 가장 악한 억압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교회 생활의 연수가 늘어 간다고 마음이 높아져 남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입에서 나와서 저와 지체들을 더럽게 한 악한 말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소서. 무엇보다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며 중심에서부터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참 제자 되게 하소서.			

매일 Q.T.		불의한 세상에서 의를 선포하는 한 사람		날짜 : 2월 16일
찬양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본문	마태복음 14:1-12			
말씀요약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분봉 왕 헤롯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침례 요한으로서 그 같은 능력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전에 침례 요한은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차지한 것을 비판해 옥에 갇혔습니다. 침례 요한은 헤롯의 생일에 춤을 춘 헤로디아의 딸의 소원대로 사형당했습니다.			
목상질문 1	※ 예수님의 소문에 두려워하는 헤롯 (14:1-5)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이려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불의를 볼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인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목상질문 2	※ 침례 요한의 죽음과 장사 (14:6-12) 헤로디아의 악함이 침례 요한의 죽음에서 어떻게 드러났나요? 악한 일들로 인해 고통받을 때도 나는 의를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나요?			
한절묵상	14:1-2 불의한 권력자들은 정의를 외치는 이들을 언제나 눈엣가시처럼 여깁니다. 자신들의 불의함이 드러나는 것이 못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정의를 외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분봉 왕 헤롯은 예수님에게서 자신이 죽인 침례 요한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의 길도 예비한 선지자였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권력의 유무에 의해 선과 악이 뒤바뀌기도 하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분별력을 주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복음의 진리를 온유하면서도 담대히 선포하게 하소서.			

매일 Q.T.		천상의 잔치를 맞본 오병이어 기적		날짜 : 2월 17일
찬양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본문	마태복음 14:13-21			
말씀요약	예수님이 빈 들에 가시자 무리가 뒤따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병자를 고치시고, 제자들더러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져온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 주시니 모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찹니다.			
목상질문 1	※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14:13-16) 예수님은 그분을 따라 걷는 많은 무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나요? 곤궁한 형편에 처한 지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 빈 들에 펼쳐진 하늘의 식탁 (14:17-21) 열두 바구니에 차게 남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의 긍휼과 권능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 손에 드릴 오병이어는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14:15-16 ‘어두워져가는 시간, 빈 들, 양식이 없음’은 예수님 앞에 모인 불쌍한 사람들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앞으로 만날 많은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당면한 문제를 외면하고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정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앞에 나아온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분명한 직무 유기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시고 굶주림으로 채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 제게 있는 것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변변치 못한 것이지만, 주된 영혼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에 마음껏 들어 사용하소서.			

매일 Q.T.		바다 위를 걸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날짜 : 2월 18일
찬양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에도		
본문	마태복음 14:22-36			
말씀요약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무리도 보내신 후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십니다.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 배로 오시고,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를 붙드십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계네 사렛에서는 모든 병든 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습니다.			
목상질문 1	※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14:22-33)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현재 위기를 믿음으로 통과한 후 나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게 될까요?			
목상질문 2	※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14:34-36)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 가를 만지기 위한 것은 어떤 사건을 연상시키나요?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간구할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14:31 ‘의심하다’(헬, 디스타조)는 두 가지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왜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바람에 마음을 빼앗겼느냐는 책망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의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과 의심은 놀이 기구인 시소와도 같습니다. 의심은 그것을 외면한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심은 믿음을 키울수록 점점 약해집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풍랑 한가운데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인생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위기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증언하도록 저와 함께하소서.			